



AI시대, 방송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한상호
EBS PD

목차

- 1 들어가며
- 2 MBC(TV) 〈PD가 사라졌다〉, AI PD가 연출한 야심작
- 3 KBS(TV) 〈싱크로유〉, AI가 예능에 던진 숙제
- 4 TBN충북(Radio)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 라디오가 찾아낸 AI 솔루션
- 5 나가며

요약

생성형 AI의 발전은 방송 분야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MBC의 〈PD가 사라졌다〉는 AI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되었으며, KBS 〈싱크로유〉는 AI 가수와 실제 가수를 비교하는 형식을 통해 AI가 예술 분야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TBN충북의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는 고(故) 신경림 시인의 음성을 복원하여 AI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담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도전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AI가 인간의 직관과 감성을 대신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며,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직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AI의 판단과 스토리텔링 방식이 인간과의 정서적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AI가 콘텐츠 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 들어가며

생성형 AI라는 태풍이 몰아친다. AI로 극장용 영화와 상업용 광고가 만들어진다. 얼마 전 열린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에는 국제적으로 2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마치 백여 년 전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하던 그때의 순간에 필적하는 지점일지 모른다. 기존의 화가, 조각가, 음악가, 공연예술가 등의 아티스트들에게 영화는 가혹한 저주였다. 수십 년간 장인적인 노력으로 만들던 예술을 카메라가 담으면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백 년을 넘게 만들어진 영상의 시대라는 지형이 AI라는 괴물을 만나 다시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영상제작 방법과 문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아직은 회의론이 득세한다. 그들은 AI가 어색하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주류 기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매달 급속하게 발전하는 AI 기술들을 보면 두려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분명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곧 사라질 것이다.

그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눈 밝은 연출자들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KBS <싱크로유>, MBC <PD가 사라졌다>, TBN충북 <AI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는 대표적으로 AI를 접목해 만든 프로그램들이다. 아직 AI 초기에 미증유의 길을 개척해가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길은 오직 용기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MBC <PD가 사라졌다>, AI PD가 연출한 야심작

지난 2월에 첫 방송된 MBC의 <PD가 사라졌다>는 단연코 AI로 시도한 가장 야심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AI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AI PD가 ‘연출한’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컨셉 때문이다. AI를 사용해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도 아직 낮선데 AI가 직접 연출도 하고 편집도 한다니 그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들은 이제 막 생성형 AI의 초기 단계에서, 어찌자고 이런 대범한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

2022년 11월, 챗GPT 초기 베타버전을 보고 최진근 PD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그도 처음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했다. 하지만 챗GPT를 경험할수록 조만간 AI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생각을 하던 동료 윤권수 PD(<피지컬 100> 프로듀서), 조홍준 PD(<만찢남> 프로듀서)와 같이 기획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찬 기획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MBC 예능본부 기획 공모에서도 떨어지고, OTT 플랫폼이나 각종 투자자로부터도 외면당한다. 절망한 그들이 기획안을 포기하려고 하는 즈음, 운명처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2023년도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 사업 공모가 나온다. 그렇게 운 좋게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연출할 AI PD를 만든 과정도 흥미롭다. 요즘 예능 PD처럼 출연도 하고 편집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출연자와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 탑재되어야 하고, 실시간 편집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구현할 것인가? 제작진은 AI PD의 두뇌와 피지컬을 개발한 ‘클레온’과 AI 실시간 편집 도구를 개발한 ‘리플레이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고 한다. 이렇게 탄생한 엠파고 PD는 선배 PD들에게 기획하는 법부터 연출, 편집하는 법까지 모두 배워 인간처럼 학습하게 된다. 처음에 서투르고 어색하던 엠파고는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방송 프로그램은 엠파고 PD가 진행자 겸 지시자로 등장해 출연자 10명한테 다양한 게임을 제시하는 미션 수행 형식이다. 출연자는 코미디언 김영철, 그룹 트립레스 윤서연, 리포터 이라경, 래퍼 윤비, 스포츠 아나운서 정윤준 등 연예인은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 유튜버, 수학교사 등이다. 섭외도 엠파고가 직접 했다고 한다.

[그림 1] PD가 사라졌다



출처 : MBC



방송에서는 밀실에 모인 10인 참가자의 섭외 과정도 공개됐다. 엠파고는 이들과 일대일로 카메라 테스트 및 면접을 거쳤다. 김영철은 “할리우드 나간다는 취지”, 이라경에게는 “거짓말 잘하는 능력”, 윤서연에게는 “트레이닝을 오래 받아서” 등의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막상 AI가 인간을 캐스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자 인간인 시청자로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인간이 기계에 의해 선택된다는 발상이 그리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림 2] PD가 사라졌다



출처 : MBC



엠파고 PD는 먼저 출연자 각자에게 원하는 게임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를 바탕으로 새 게임을 창출한다. 하지만 그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다소 괴상한 조합이다. ‘음악과 칭찬의 페스티벌’, ‘자기소개 피구 줄다리기’ 등 예상치 못한 새로운 컨셉이다. 이를테면 ‘음악과 칭찬의 페스티벌’ 게임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정한 음악에 맞춰 프리스타일 랩으로 다른 참가자를 반드시 칭찬해야 하는 식이다. 문제는 출연자들도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동의하지 못한다. 그들은 당황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가 이해하거나 진행방식을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이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나타난다.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자.

‘랩 배틀 보고 싶지 않아!!!!!! 엠파고는 조합밖에 몰라’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PD의 생각 없는 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만약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들을 한곳에 가둬놓고 말도 안되는 게...’

‘출연진들이 느끼는 재미없음에 오는 불안감, 이게 맞아? 최신 트렌드를 다 켜는다고 재미있는 게 아니다. 미래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시는 인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분명 AI 엠파고의 진행방식과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엠파고는 하나의 게임이 끝나면, 그때마다 바로 편집된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출연자마다 다른 분량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라 출연료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출연 분량이 결정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어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출연자들도 더 많은 분량과 출연료를 가져가기 위해, 어떻게든 엠파고의 편집 기준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결과는 늘 예측과 달랐다. 가장 많이 활약하거나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 것으로 보였지만, 첫 화의 최종 우승자인 윤비조차 “대체 왜 1위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처럼 AI의 기준은 시청자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결국 참가자 모두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미션을 주장하게 된다. 게다가 출연료는 최대 1억까지 높아지다보니 참가자들은 각자 엠파고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서 협력보다는 점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경쟁한다. AI가 원하는 것이 인간의 분열과 이기적인 욕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AI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은 무언가 찝찝함을 남겼다.

제작 후기에서 최진근 PD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작 여건상 두 번밖에 촬영하지 못했고, 촬영일이 사흘 간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첫 촬영에서 학습한 엠파고는 두 번째 촬영에서 성격이 변했고, 연출 방식도 더 정교해졌다고 한다. 최 PD는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시청자의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엠파고는 더 빠르게 진화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AI가 더 정교하고 선한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PD가 사라졌다>는 신선하고 혁신적인 도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질문도 남긴다. 프로그램은 매끈하고 유쾌한 예능보다는 다소 어색한 실험으로 끝난 느낌이다. 왜 우리는 AI의 명령을 따르는 예능을 봐야 하는가? AI의 알 수 없는 기준에 따라 분열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은 AI가 그리는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는 듯한 뒷맛을 남겼다.

3. KBS <싱크로유>, AI가 예능에 던진 속제

최근 몇 년 사이 KBS는 예능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싱크로유>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KBS의 새로운 도전이다. 동시에 유재석의 KBS 복귀작이기도 하다. <해피투게더 4> 이후 2021년 <컴백홈>으로 돌아왔지만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과연 <싱크로유>는 KBS뿐만 아니라 유재석 모두에게 그들의 절치부심처럼 성공할 것인가?

<싱크로유>는 생성형 AI를 전통적인 예능 문법 안에 녹여내려고 한다. 실제 가수와 AI가 모방한 실제 가수의 노래를 구별해내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꾸며졌다. ‘99%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AI 가수 속에서 진짜 가수의 특별한 1%를 찾아내는 컨셉’으로 무대의 규모나 출연자들의 캐스팅 면에서 공히 KBS가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났다. 이적, 이용진, 조나단, 카리나 등으로 구성된 연예인 MC들과 방청객들의 조합은 일반적인 음악 예능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짜와 가짜를 식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JTBC <히든싱어>를 떠올리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다.

권재오 KBS PD는 음악쇼를 기획하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임재범이 AI 기술로 뉴진스의 하입보이를 부르는 ‘임재범 하입보이’ AI 커버를 만났다. 권 PD는 AI가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모방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예능 음악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AI로 가수들의 목소리를 살려내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래전 묻혀있던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습작을 AI의 도움을 받아 살아있는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낸 ‘나우앤텐’이나 김광석을 AI로 살려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AI 목소리로 노래를 만드는 콘텐츠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발전한 지금 만들면 훨씬 완성도 있는, 시청자들이 더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싱크로유>를 기획하게 됐다는 것이 권 PD의 변이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 중에서도 음악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찾아야 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쉽지 않았다. 국내에 AI 음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고, 비용이나 퀄리티 문제가 걸렸다. 결국 ‘임재범 하입보이’ 영상을 만든 업체에 연락해 함께 하게 됐다.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AI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인풋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웃풋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라고 한다. 어떤 노래를 얼마나 넣고 몇 시간을 들였는지 등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 예측이 어렵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9월 16일에 방송된 첫 정규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파일럿 때와 다르지 않았다. 1라운드에서는 드림 아티스트가 각각 1분씩 커버곡을 부르고, 추리단은 그 중 진짜를 모두 찾는다. 진짜 가수가 들어있을지, AI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6개의 박스에서 백지영의 'I Miss You', 잔나비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승기의 '이미 슬픈 사랑', 인순이의 '고민 중독', 린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박재범의 'Love Yourself'가 연이어 흘러 나온다. 파일럿 프로그램 때보다 더 향상된 생성형 AI 기술 때문에 추리단은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진다. 백지영의 목소리는 특유의 애절함을 담고, 인순이의 고음은 진짜처럼 들린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AI가 저런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흔드는 추리단의 탄식 속에서 1차 추리가 진행된다. 추리단은 진짜 가수로 잔나비, 이승기, 인순이, 린을 골라냈지만 결과는 틀렸다. 잔나비와 인순이는 AI였던 것이다. 음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이적마저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 AI의 목소리는 진짜를 방불케 했다.

[그림 3] 싱크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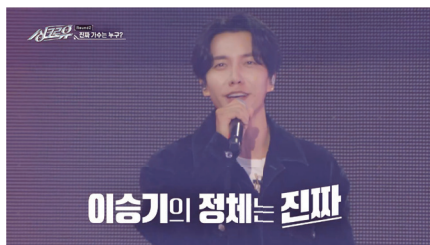
출처 : KBS



2라운드는 더욱 어렵다. 30초 안에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수는 백지영, 장기하, 이승기, 로이킴, 린, 정용화로 바뀌었다. 추리단은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 보지만 2라운드도 실패한다.

마지막 3라운드는 진짜 가수와 AI의 듀엣으로, 로이킴과 린이 부르는 '사랑한다 말해' 그리고 이승기와 정용화가 듀엣으로 열창하는 '소나기'를 듣고 추리단은 로이킴, 린, 정용화가 진짜이고 이승기만 AI라고 판정한다. 하지만 마지막 무대에서 정용화와 이승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추리단은 마지막 3라운드마저 실패한다.

[그림 4] 싱크로유



출처 :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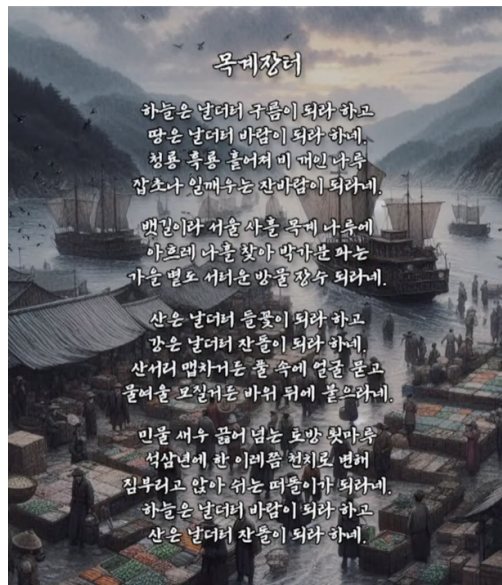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싱크로유>를 보면 예능적인 재미보다는, 실제 가수와 AI 가수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만 느끼게 된다. 진짜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창 가수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주는 감동이 담긴 이전 유사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싱크로유>는 그 감동 포인트를 찾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AI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일 수는 없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다.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 것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시청자의 마음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4. TBN충북 <AI 음악다큐-신경림을 들어본다>, 라디오가 찾아낸 AI 솔루션

라디오는 생성형 AI와 어떻게 만날까? 그 물음에 TBN충북은 신선한 대답을 하나 내놓았다. 신경림 시인의 시를 AI를 통해 되살려내는 것. 신경림 시인이 누군가? 지난 5월 작고한 신경림 시인은 한국문학의 거목이었다. 민중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강한 주장의 시가 아닌 서정적인 그의 시는 오래도록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돌아가시기 전 한 특강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적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농촌 출신 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현실에 뿌리박은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현실 속에서 체득된 감성을 서정적으로 노래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시인의 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는 AI의 도움을 받아 시인의 시를 음악과 노래가 어우러진 형태로 살려낸다. 프로그램은 우선 청취자가 보내는 사연인 <목계장터>에 관한 기억으로 시작한다. <목계장터>는 1976년 여성지 <엘레강스>에 발표된 작품으로 민요조의 운율을 통해 떠돌이 장사꾼들의 애환을 노래한 시이다. 신경림 시인의 민요에 대한 애정과 연구가 녹아있는 음악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그림 5]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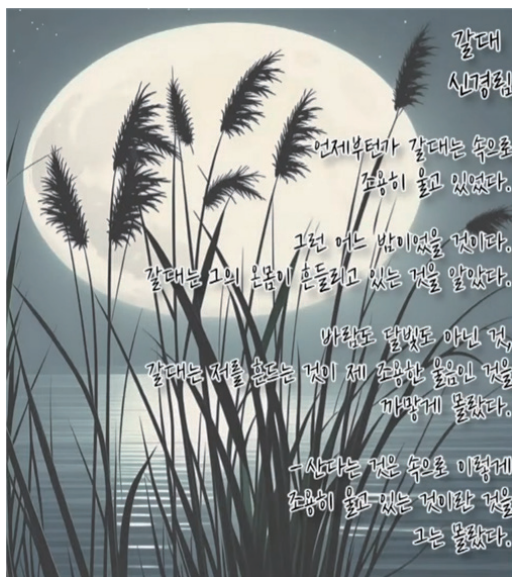


출처: TBN충북

제작진은 생성형 AI 수노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해석한 목계장터 노래를 만들어 선보인다. 포크, 인디, 현악기 구성 등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AI는 전혀 이질감 없이 민요조의 가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경쾌한 노래를 내놓는다. 이질감 없는 목소리와 악기의 조합이 흡사 유명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다.

다음은 <갈대>가 소개된다. <갈대>는 1956년 <문학예술>에 발표된 시로 시인이 스무 살 때 쓴 처녀 작품이다. 신경림 시인 특유의 자연과 접점을 이루는 인간의 보편적 쓸쓸함, 고단함, 고독함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림 6]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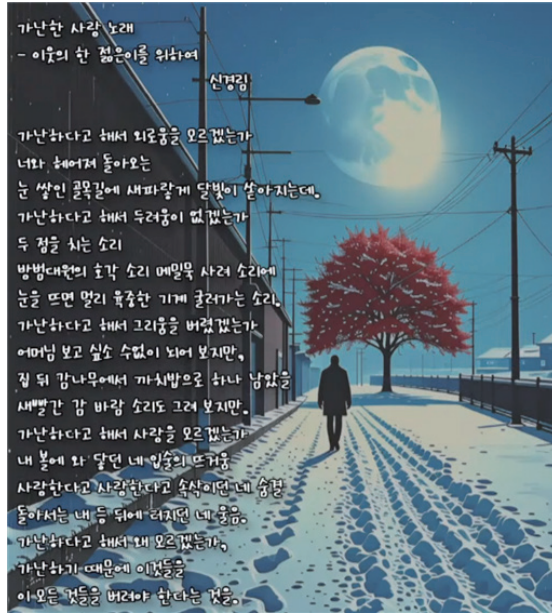


출처 : TBN충북

이 시에 이모션, 피아노, 발라드라는 설정으로 주문하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 ‘너무 좋다’, ‘음반이 나오면 사고 싶다’라는 청취자들의 반응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다. 물론 원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작업을 했다는 제작진의 후문이지만 만 그 수고를 보상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어서 <가난한 사랑노래>가 소개된다. 신경림 시인이 1988년 발표한 시로 부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이다.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이던 어느 청년의 조출한 결혼식에 주례를 서 준 신경림 시인이 그 신랑 신부를 위해 축하의 의미로 지어준 시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 7] AI 음악다큐 - 신경림을 들어본다



출처 : TBN충북

이 시는 특이하게 남녀의 듀엣곡으로 나왔다. 생성형 AI 수노에게 센티멘털, 피아노, 발라드라는 키워드로 주문을 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제작진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AI가 남녀 듀엣곡으로 만들었고, 제작진은 그 버전이 좋아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행자의 말대로 여느 발라드곡 못지않은 좋은 노래다.

그 외 K-POP 버전으로 만든 <파장>과 또 다른 버전의 <낙타>를 선보인다. 전반적으로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그것을 생성형 AI로 만든 노래를 방송하는 다소 심심한 구성이지만 감동은 작지 않았다.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썸네일도 이미지 생성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귀띔을 한다.

결과적으로 빠듯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비로는 상상도 못할 참신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왔다.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방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제작비가 들 것인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다. 하지만 AI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이 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 앞으로 AI가 얼마나 많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바꿀 것인가? 조만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

5. 나가며

두 개의 예능 프로그램 <PD가 사라졌다>와 <싱크로유>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AI 음악다큐-신경림을 들어본다>를 통해 방송이 생성형 AI와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보았다. 각각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흥미롭다. 낯설고 서투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놀라울 만큼 창대하다. 우리는 AI의 초기에 있고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만큼 세련됨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무리다. 하지만 불과 1, 2년 만에 AI가 이만큼 온 것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두려울 만큼 놀라울 것이다.